

“영암호 일대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연계,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영암군, 해남군, 전라남도, 목포대학교와 MC 에너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SP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 서남해안권 복합관광 거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해양레저관광은 관광산업시장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을 공유했다.

나아가 최근 해안가 중심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책 사업 설계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레

저관광 중심지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내수면 마리아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정비·관리 교육) ▲내수면스포츠가치센터(교육·체험) ▲조정·카누경기장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산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12개월간 수행될 용역에서는 영암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설정하고, 지역 여건 분석, 실행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거쳐 단계·사업별 추진전략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영암군은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영암군, 해남군,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대, 목포해안대 등은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최근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연계,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 제공

함평군, 우기 대비 하천 점검

함평군이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지역 내 국가하천 3곳, 지방하천 18곳, 소하천 242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우기 전 방재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정비해 군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함평군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제방과 호안 등 구조물의 관리상태, 하천 내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제거, 하천 불법 점유 상황을 집중 확인한다.

군은 방재시설물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고 이후 중기 하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 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하천 인근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근무체계, 응급보수장비대기 등 하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하천 내 재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강진군, 범씨 파종 전 종자소독 당부

성공적 벼농사 위해 건전육묘관리 홍보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고품질 강진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범씨 파종 전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벼 종자소독은 종자로 전염되는 1층·5병(벼잎선충, 키다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깨씨무늬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이다. 범씨소독은 일반소독(약제침지소독)과 친환경소독(온탕소독, 온탕소독+석회유황)을 주로 활용한다.

일반소독은 종자량의 2배 물량에 범씨소독 적용약제를 희석하고, 물이 잘 통하는 망사자루에 종자를 담아 범씨밭아기에 세워서 넣고, 물 온도 30℃를 유지하며 약제별 24~48시간 소독하며 선충방제용 살충제를 첨가해 사용한다.

친환경소독은 온탕소독기에 종자량의 10배 정도 물을 넣고, 온탕소

독(60℃, 10분)을 실시한 후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그면 약 96%의 키다리병 방제효과가 있다.

특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온탕소독+석회유황 체계 처리는 온탕소독한 범씨를 석회유황(22%, 50배액)을 희석한 30℃의 물에서 24시간 침지 소독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하면 방제효과가 99%로 더 높아진다.

소독 후 범씨 담그기(침중)는 적산온도(밭아까지 0℃ 이상의 일평균기온을 합산) 100℃를 기준으로 30℃에서 3~4일(약제소독 시간 포함) 동안 실시하고,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1일 4~5회 저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종자소독 홍보를 위해 약 1천부의 리플렛을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배부했다.

/박종욱 기자

신안군민-공무원 ‘협력의 장’ 워크숍 성료

신안군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지표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지표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참가자들은 신안군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

표 설정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워크숍에 함께한 호남지방통계청 배순미 과장으로부터 통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계를 활용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 신안군의 현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안군민의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는 또한 군민과 공무원이 신안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자랑거리, 그리고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며,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고도화 연구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표들을 모으는 데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장흥근 기자

목포,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목포시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이란 길고양이가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해서 수술을 한 후 원래 장소에 방사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중성화사업은 포획→수술→후처리→방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수

술 후 후처리 회복을 위해 장마철, 혹서기 및 혹한기는 피하며, 체중이 2kg미만 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 대행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수술은 동물병원 5개소, 포획·방사 분야는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

협회 등 2개소가 맡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보미 등 신청인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진행된다.

목포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난 2021년 325마리, 2022년 860마리, 2023년 610마리 등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 따라 고양이 소음 등 피해 민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무안 청계면 ‘하늘별바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계면에 소재한 ‘하늘별바다’(대표자 고세형)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관광재단은 매년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에서는 무안 하늘별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세 곳이 선정됐다.

무안 ‘하늘별바다’는 야외 테라스를 갖춘 숙박객실과 세미나실, 온수 인피티니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예체험, 농촌체험, 갯벌체험 등이 가능한 관광주거 주민사업체로 지난해에는 으뜸주거 사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고민재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 무안군 의회 · 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